전남도체육회, 레슬링·수구팀 잇따라 창단

전국체전 겨냥 전략종목 육성
레슬링 선수 5명으로 구성
전 국대 감독 박근철 지휘봉
수구 13명…감독에 진만근
"전남체육 명예·위상 높일 것"

전남도체육회 소속 레슬링과 수구팀이 창단한다.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는 15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출전을 목표로 레슬링·수구팀 창단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고성수·유인숙 부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임원과 레슬링협회, 수영연맹 관계자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도체육회는 올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겨냥해 전략종목 육성을 위해 팀을 창단했다. 두 팀의 선전을 바탕으로 전남체육 위상을 높이고 전국체전 성공개최에도 힘을 보태기 위한 고려도 있다.

레슬링팀은 함평학다리고등학교 박근철 감독이 이끌게 되며 전 함평군청 레슬링팀 감독이었던 윤성용 감독은 명예감독으로 위촉했다. 박 감독은 전 레슬링 국가대표·청소년 국가 대표 감독을 겸임하는 등 지도자 경험이 풍부하다.

선수는 모두 5명으로 2010·2011 아시아선수권대회 동메달을 획득한 이우주와 2010 광저우아시안게임 은메달리스트인 이재성이 창단 멤버로 뛴다. 제103회 전국체전 금메달을 획득한 나홍길, 제103회 전국체전 은메달리스트인 김여진 등도 합류했다.

수구팀은 모두 13명으로 꾸려졌으며 현 수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진만근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 선수단은 전·현직 국가대표들로 구성됐다. 정병영·한효민 (이상 국가대표), 유병진·최진재·송기준·정지헌·김동혁·추민종(전 국가대표), 윤치훈·나승현·박형민·조혜승(전 상비군대표) 등이다.

전남체육회 레슬링팀과 수구팀은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제104회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노리고 있다.

레슬링·수구팀을 맡은 두 감독은 "전남체육의 명예와 위상을 전국에 떨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팀을 이끌겠다. 옛 전남체육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김영록 지사의 관심과 지원으로 도체육회 레슬링팀과 수구팀을 창단하게 됐다. 우수 선수 확보와 종목 연계육성, 그리고 선수들이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두 팀의 창단이 전남체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체육회 레슬링·수구팀은 지난 3월 대한체육회 팀 창단 공모사업에 선정돼 3년간 모두 6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도체육회는 15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레슬링·수구팀 창단식을 열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 고성수·유인숙 부회장을 비롯한 임원과 선수들이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김시우 "US오픈 일낸다"

US오픈 개막을 하루 앞두고 김시우가 14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LA컨트리클럽에서 연습 라운드 8번 페어웨이에서 샷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 상생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 대구서 열려

광주선수단 143명 참가

광주시와 대구시가 공동 주최하는 영·호남 상생발전을 위한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가 대구시 일원에서 개막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부터 이틀간 대구스포츠단 훈련센터,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등 대구시 일원에서 열리는 '2023 달빛동맹 스포츠 교류대회' 에 참가했다. 광주 선수단 143명, 대구 160명 등 모두 303명이 함께 했다.

광주선수단은 스쿼시,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풋살 등 5개 종목에 출전한다. 스쿼시 종목에 국가대표 송동주 등 9명과 동호인부에서 6명, 배드민턴에는 전남대학교부설고등학교 선수 12명과 동호인부 18명 등이 참가한다. 풋살 동호인부에서 남녀 2팀이 출전하고 테니스 종목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세대별 남녀 각 2명씩 출전한다.

스포츠 교류대회는 양 도시 간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주와 대구가 체결한 달빛동맹의 공동협력사업에 스포츠도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2013년 광주에서 초·중·고 야구대회 개최를 시작으로 양 도시 체육회의 주관으로 매년 번갈아 가며 대회를 열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교류를 통해 체육분야 발전과 달빛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가 성사되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15일 대구스포츠단훈련센터에서 박영기 대구시 체육회장 등 대구체육회 임·직원이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을 비롯한 광주 선수단 환영식을 열고 화합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한국 여자배구 네이션스리그 첫승 언제쯤?

최강 브라질에 져 5연패

한국 여자배구가 국제배구연맹(FIVB) 발리볼 네이션스리그(VNL)에서 5연패를 당했다.

세사르 곤살레스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배구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닐슨 넬슨 아레나에서 열린 2주 차 첫 경기에서 홈팀 브라질에 세트 점수 0-3(29-31 16-25 16-25)으로 졌다.

한국은 튀르키예에서 끝난 1주 차 경기에서 4패를 당하는 등 지난해 VNL 포함 17연패 수렁에 빠졌다. 또 올해 VNL 다섯 경기에서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부진도 이어갔다.

세계랭킹 26위 한국은 1위 브라질을 맞아 첫 세트에서 듀스 접전을 펼쳐 1주 차와 달라진 실력을 선보였다.

그러나 브라질의 타점 높은 공격을 막지 못하고 2~3세트에서는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국은 2주 차에 새로 가세한 세터 김지원(GS칼텍스)과 아웃사이드 히터 김다은(흥국생명)을 1세트에 투입해 활기 넘치는 배구를 펼쳤다.

김다은과 박은진(KGC인삼공사)이 블로킹으로 브라질 공격을 잇달아 차단하면서 한국은 브라질과 대등하게 맞섰다.

맥없이 무너졌던 수비도 이날에는 끈질기게 브라질 공격을 걷어내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다.

1세트 듀스 접전에서 한국은 브라질의 연속 범실을 틈타 29-28로 세트 포인트를 잡았으나 브라질의 고공 강타에 내리 석 점을 내주고 아쉽게 무릎 꿇었다. /연합뉴스

'미스터 매직' 세이기너 PBA 데뷔전 완승

서현민 3-0 꺾고 64강 진출

수십 년 동안 3쿠션과 예술구 무대에서 활약했던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기너(튀르키예·휴온스)가 프로당구 데뷔전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뒀다.

세이기너는 14일 밤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열린 '경주 블루원리조트 PBA-LPBA 챔피언십' PBA 128강 경기에서 서현민에게 3-0으로 완승했다.

앞서 '스페인 3쿠션 전설' 다니엘 산체스(에스와이), '한국 3쿠션 간판' 최성원(휴온스) 등 이번 시즌부터 프로 무대에 뛰어든 강호가 줄줄이 1회전에서 고배를 마신 것과 달리, 세이기너는 깔끔하게 승리로 신고식을 했다.

세이기너는 서현민이 1세트 선공을 놓친 기회를 틈타 총 3차례 뱅크샷(2점)을 포함해 차곡차곡 점수를 쌓아 15-3으로 1세트를 가져갔다.

2세트에서도 2이닝 하이런 4점을 시작으로 10이닝 만에 15점에 도달했고, 3세트에서는 7이닝에 하이런 5득점에 12-11로 역전한 뒤 8이닝에 나머지 3점을 채워 세트 점수 3-0 완승을 완성했다.

지난 시즌 랭킹 1위 조재호(NH농협카드)는 구자복과 경기에서 승부치기 끝에 간신히 승리했고, 하이에르 팔라존(스페인·휴온스)과 에디 레펜스(벨기에·SK렌터카) 등 강호들이 64강에 합류했다.

앞서 열린 여자부 LBPA 32강 경기에서는 19세의 '무서운 신예' 장가연(휴온스)이 프로 데뷔 첫 투어 무대에서 최혜미(웰컴저축은행)를 세트 점수 2-0으로 격파하고 16강에 합류했다.

이밖에 김민아와 김보미(이상 NH농협카드)가 나란히 용현지(하이원리조트)와 전지연을 세트 점수 2-0으로 일축했고, 이미래(하이원리조트)와 김보라도 16강 티켓을 따냈다. /연합뉴스

PBA 데뷔전에서 완승한 '미스터 매직' 세미 세이기너. 〈PBA 제공〉

즐거운 문화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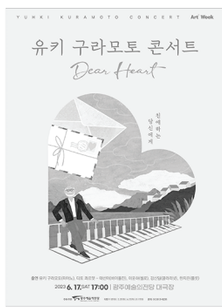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플래시
3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인어공주,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4관	플래시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9관	엘리멘탈, 플래시
7관씨네커플	범죄도시3
8관씨네커플	범죄도시3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6월)
일시 : 2023-06-01(목) ~ 2023-06-30(금)
매주 목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Dear Heart」
일시 : 2023-06-17(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